



‘포효’ 13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 남태희가 전반 첫골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남태희 결승골 간신히 이겼다

한국, 쿠웨이트 1-0 꺾고 2연승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2연승을 달렸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3일 호주 캔버라의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황태자’ 남태희(레퀴아)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선 오만과의 대회 첫 경기를 1-0 승리로 장식했던 한국의 2연승이다.

승점 3을 더하며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유리한 고지는 밟았지만 빈틈 많은 어려운 경기였다.

부상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쿠웨이트전 다득점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만전에서 정강이 부상으로 교체됐던 이청용(볼튼)이 빼어 실금이 가면서 14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고, 원맨쇼를 선보였던 손흥민(레버쿠젠)도 감기 기운을 호소하는 등 앞선 경기와 비교해 선발 라인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컨디션 난조를 보인 구자철(마인즈)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과 오만전에서 타박상을 입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조영철(카타르) 등 오만전에 출격했던 7명이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호흡이 맞지 않은 한국은 이렇다할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반전을 흘려 보냈다.

전반 30분이 지나서야 이근호(엘자이시)가 한국의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답답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해결사는 슈틸리케 호의 ‘황태자’ 남태희였다.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장한 남태희는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내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찾아온 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전반 36분 노련한 차두리(FC 서울)가 쿠웨이트 진영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골 에어리어에 있던 남태희가 머리로 공을 터치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같은 선제골을 기록한 남태희는 후반에도 매서운 슈팅과 패스로 한국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쿠웨이트가 주도했다. 후반전 쿠웨이트는 강한 공세를 펼치며 한국 수비진을 흔들었다.

후반 4분 알리 알마시크의 중거리포가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도 상대를 놓치는 등 수비진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후반 14분 남태희가 날카로운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노리기도 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은 1-0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한편 한국은 오는 17일 오후 6시 브리즈번에서 개최국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고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도’ 2015 AFC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 슈틸리케 감독이 1-0으로 경기가 끝나자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해적선 탄다

피츠버그와 4년 174억원 합의

팀 내 8번째·내야수 3번째 연봉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입단을 앞둔 강정호(27)가 팀 내 8번째, 내야수 중 3번째로 높은 평균 400만 달러(약 43억3800만원)에 입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츠버그가 강정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3일(이하 한국시각) “피츠버그가 강정호와 4년간 1600만 달러(약 173억5200만원)에 계약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계약한다면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 381만8923달러를 상회하는 조건에 미국 무대를 밟는다. 세금 문제로 첫째 낮은 금액에서 시작해 점점 금액을 높여가는 메이저리그 다년 계약 특성상 2015년에는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4년 동안 수령할 금액은 평균을 넘긴다.

빅마켓 구단이 아닌 피츠버그에서는 ‘연봉 서열’이 더 올라간다. 트레이드나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이 없다면 피츠버그에서 강정호보다 높은 평균 연봉을 받는 선수는 8명뿐이다.

피츠버그 내야수 최고 몸값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닐 위커가 860만 달러, 페드로 알바레스 550만 달러를 받을 전망이다.

강정호가 평균 400만 달러의 계약에 최종합의한다면 한층 높은 관심 속에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유리한 고지에서 주전 경쟁을 펼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에 대한 편견에서도 한걸 수월하게 벗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호날두 ‘발롱도르’ 2연패

60경기 출전 61골...37.66% 득표 통산 3번째

슈틸리케 감독 호날두, 기성용은 메시에 투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2014년 한해를 빛낸 최고의 축구 선수로 뽑혔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4년 시상식에서 최고 선수상에 해당하는 FIFA-발롱도르(Ballond'Or)를 차지했다.

호날두는 2년 연속 FIFA-발롱도르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2008년 수상까지 더하면 통산 세 번째다. 호날두는 FIFA 가맹국 감독·주장·기자로 이뤄진 선거인단 투표에서 37.66%의 지지를 얻어 15.76%를 차지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15.72%의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골키퍼)를 따돌리고 최고의 선수 자리에 올랐다.

호날두는 지난해에만 소속팀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61골을 작렬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17골을 기록, 1962-1963시즌 호세 알타피니(전 AC밀란)와 2011-2012시즌 메시가 세운 한시즌 대회 최다 골(14골)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최고의 여자축구선수상은 볼프스부르크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끄는 데 앞장선 나딘 케슬러(볼프스부르크·독일)가 받았다. 최고의 골 장면을 연출한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은 하메스 로드리게스(레알 마드리드)에게 돌아갔다.

남자축구 올해의 지도자상은 독일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요아힘 뢰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여자축구 올해의 지도자상은 독일 출신의 랄프 켈러만(볼프스부르크)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